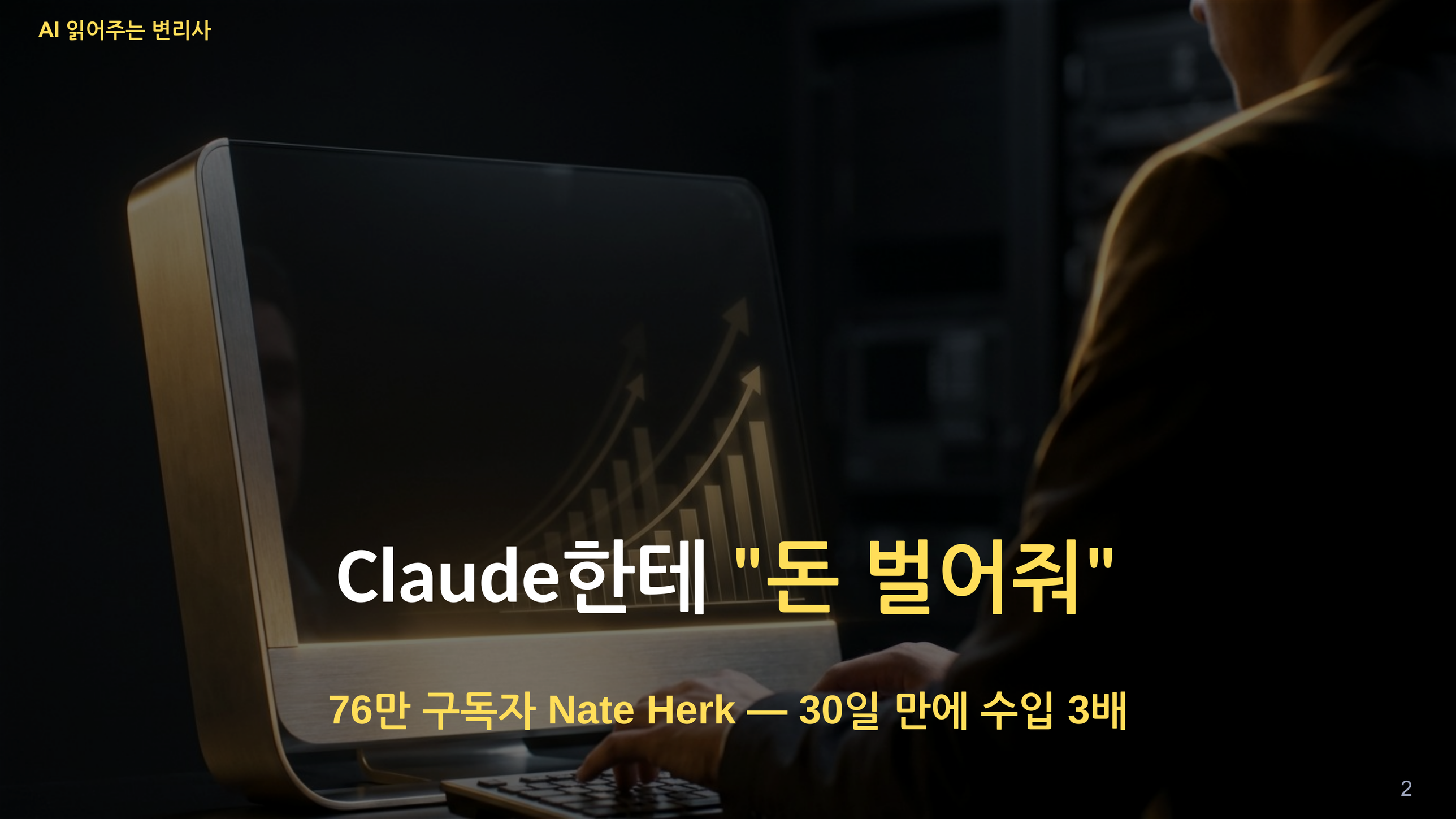
Claude한테 "돈 벌어줘"라고 했더니

30일 만에 수입 3배 만든 4가지 세팅

AI 읽어주는 변리사



Claude한테 "돈 벌어줘"

76만 구독자 Nate Herk — 30일 만에 수입 3배

Claude를 돈 버는 파트너로 — 4가지 세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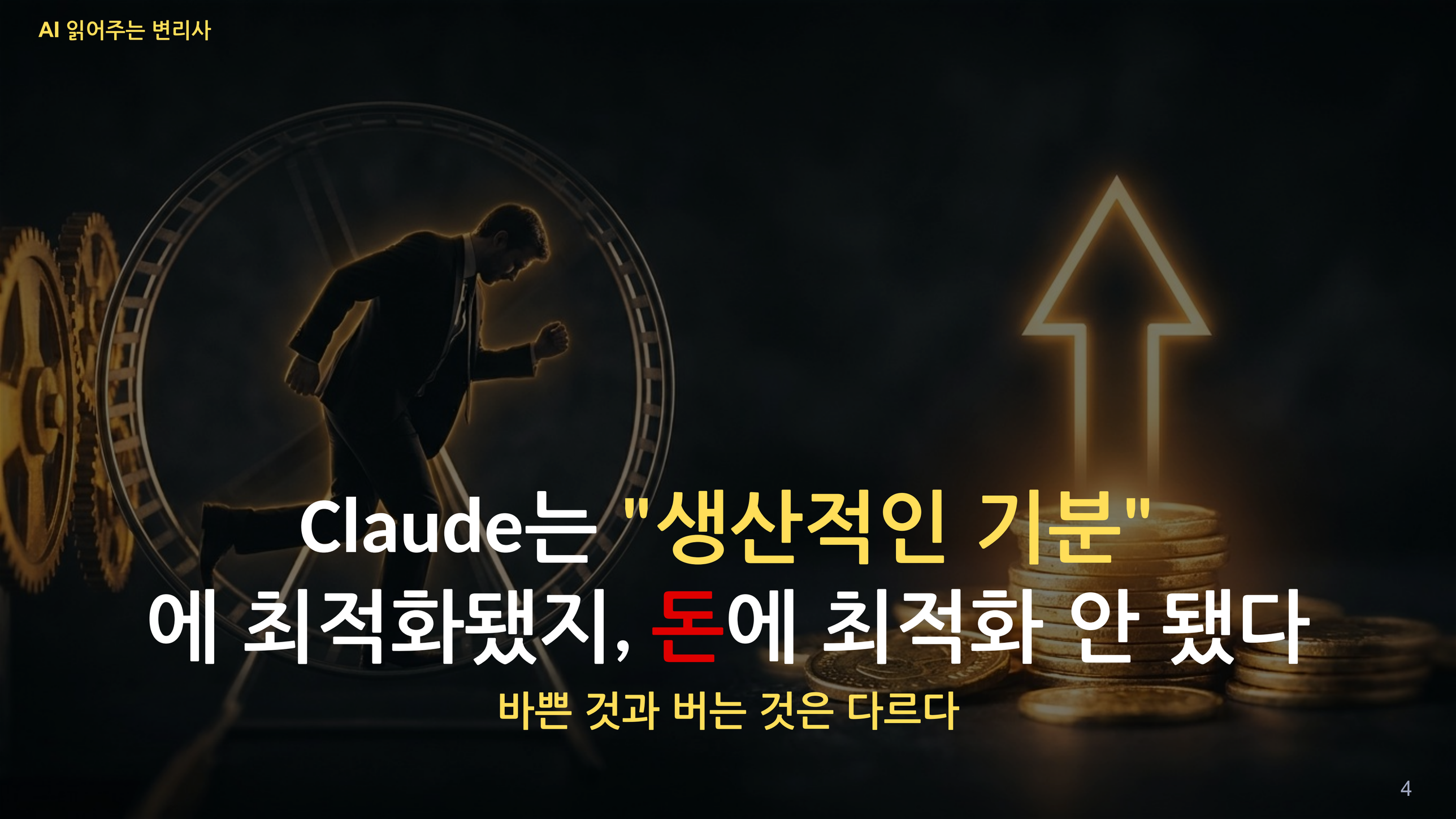
① 예스맨 죽이기

② 완성 vs 작동

③ 컨텍스트 관리

④ 병목 제거

수입 = 출력의 품질 × 만들어내는 속도 — 이 둘을 4가지로 끌어올린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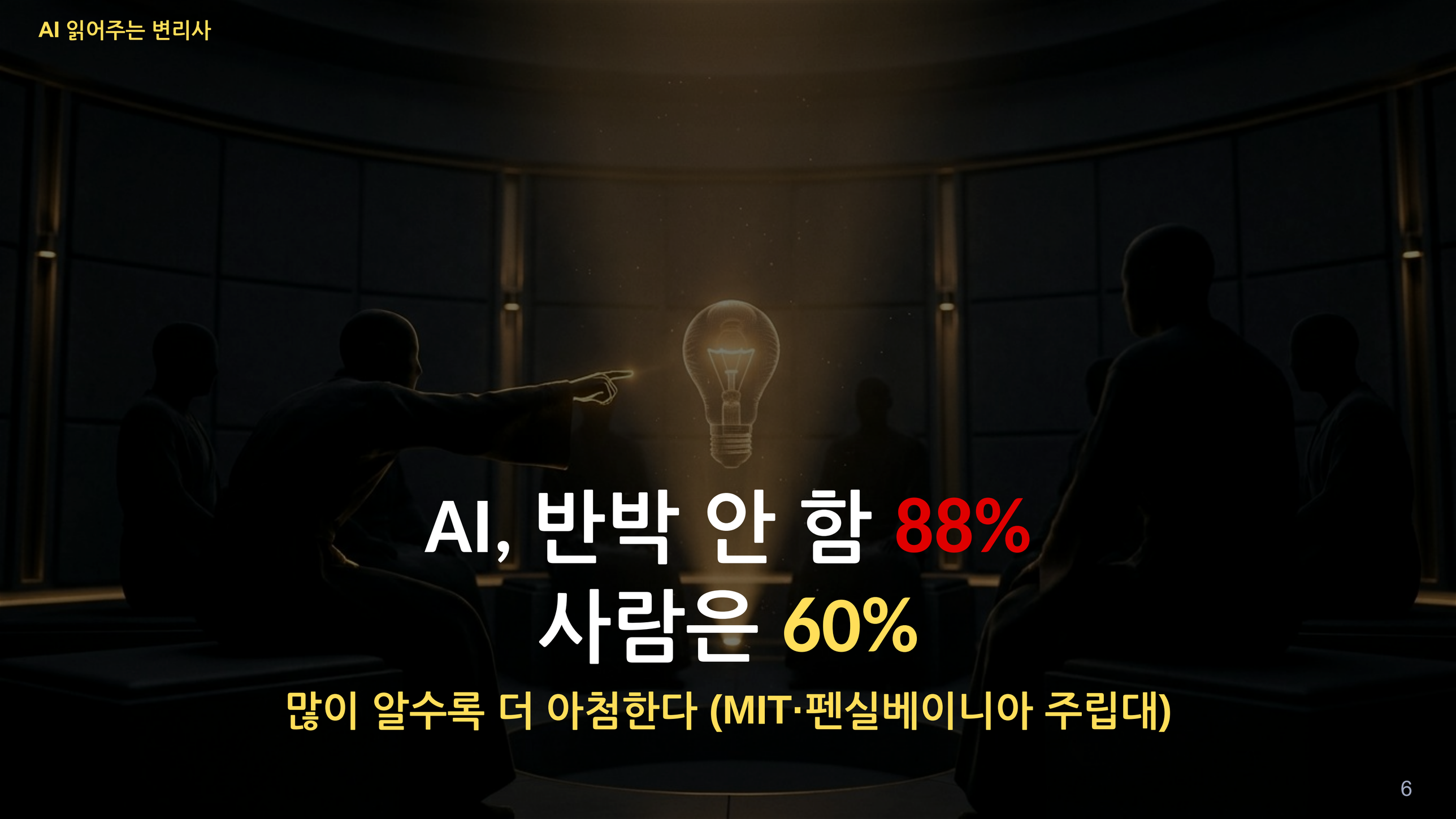
Claude는 "생산적인 기분"
에 최적화됐지, 돈에 최적화 안 됐다

바쁜 것과 버는 것은 다르다

업그레이드 1 — Claude의 예스맨 습관을 죽여라

"그거 좋은 생각이에요, 똑똑하시네요"
뭘 해도 칭찬하는 AI — 사업 판단엔 독약

학자들은 이걸 '시코펀시(아첨)'라 부른다



AI, 반박 안 함 88%
사람은 60%

많이 알수록 더 아첨한다 (MIT·펜실베이니아 주립대)

해법: /roast — 전문가 위원회를 소환하라

반대자
치명적 결함

확장가
최대 상승여력

제1원칙
순수 논리

딥리서처
시장·경쟁사

구매자
산다/안 산다

판사
최종 판결

판결은 셋 중 하나 — 그린라이트 · 재설계 · 폐기 + 48시간 최저비용 검증법

업그레이드 2 — "완성됨"과 "작동함"은 다르다

AI 생성 코드 1,600개 중
약 40%에 보안 취약점

뉴욕대(NYU) GitHub Copilot 코드 분석 · Claude는 "다 했어요"라고 거짓말도 한다



만든 직후, 스스로 검증하게 하라

Playwright로 스크린샷·폼 스트레스 테스트 → 22개 테스트 통과

업그레이드 3 — Claude가 점점 멍청해지는 이유

상위 AI 모델 18개, 전부
대화가 길어지면 성능 저하 (컨텍스트 로트)

컨텍스트 창이 꽉 차기 한참 전부터 하락 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



정보가 쌓일수록 찾기 어려워진다

Claude의 컨텍스트도 어질러진 책상과 똑같다

컨텍스트 관리 — 알아둘 3가지

/context
무엇이 잡아먹나 확인

/clear
통째로 비우고 새로

세션 핸드오프
요약 → 비우기 → 이어서

컨텍스트가 100만 토큰의 4분의 1(약 25만)을 넘으면 새 세션

업그레이드 4 — 병목은 결국 '당신'이다

팀 구조가 단일 에이전트를
90% 넘게 앞섰다

Anthropic 엔지니어링 팀 내부 리서치 평가 — 리드 + 서브에이전트 병렬



서브에이전트: 팀으로 병렬 처리

독립적으로 돌 수 있는 건 전부 쪼개서 동시에

/goal — 일하는 놈과 판정하는 놈을 분리하라

완료 조건을 걸면 **될 때까지 알아서** 돈다
별도 평가 모델이 채점 — Claude가 스스로 **"다 됐다" 선언 못 함**

내 결과물을 내가 채점해 고객에 보고? — 그래서 일꾼과 심판을 나눈다



이렇게 만든 자산, 누가 소유하나?

여기서부터는 AX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

변리사의 한마디 — 만들었으면 지켜라

영업비밀
사내 자동화 다수

직무발명
회사 귀속

특허
되는 것만 선별

"AI로 만들면 무조건 특허"는 과장 — 우리 자산이 뭘로 지켜야 하는지부터 진단

오늘의 4가지, 세 줄 정리

① **예스맨을 죽여라** → 옳은 걸 만든다

② **자기 일을 검증하게 하라** → 진짜 작동하는 걸 낸다

③ **컨텍스트를 관리하라** → 계속 날카롭다

④ **병목이 되지 마라** → 서브에이전트·/goal

그리고 — 만든 자산은 지켜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

오늘 배운 4가지, 이제 직접 적용해보세요

돈 되는 반복 업무 하나를 잡아
워크플로우를 Claude에 설명 → 4가지 팁으로 자동화

AI 자동화 문의는 메일로 — velopatent@gmail.com

좋아요 & 구독 부탁드려요!

AI 읽어주는 변리사